



## 의 훈훈한 설맞이

설명절 맞이 협력사 자금부담 해소  
농촌 자매마을 등서 직거래장터도  
농민들 소득증대 등 상생 적극실천

삼성전자와 전자계열사들이 설을 맞아 협력사와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상생 활동에 나선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 전자계열사들은 협력사 물품대금 지급을 설 연휴 전으로 최대 7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물품대금을 월 4회, 전자계열사들은 월 3~4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물대를 더 당겨서 지급하기로 한 것.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지난 6일 자매결연을 맺은 전국 농촌마을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가 열렸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이 조기에 지급하는 설 물품대금은 4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전자계열사들은

전국 각 사업장에서 자매마을, 농촌진흥청 협력마을을 농민들과 함께 '설맞이 자매마을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 협력사엔 물품대금 조기 지급

✓ 농어촌엔 직거래 장터로 상생

삼성전자 구미 스마트시티는 8~13일 까지 자매 결연을 맺은 마을에서 생산한 버섯, 사과, 한우, 된장, 꿀, 홍삼액 등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연다.

삼성전자 나노시티 기흥·화성 캠퍼스에서는 12~13일까지 용인과 화성지역 자매마을, 농촌진흥청, 사회적 기업 등 41 곳이 참여해 사과, 배, 홍삼 등을 판매하는 장터가 열릴 예정이다.

또 광주 삼성전자 그린시티는 12~14일 까지 자매마을, 농촌진흥청 협력마을과 함께 연합 장터를 마련해 굴비, 꿀, 김 부각, 치즈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전자계열사들도 자매마을 장터 개설에 적극 나설 예정인데, 삼성SDI는 기흥사업장과 울산사업장에서 7~14일까지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의 사과, 배, 한우, 굴비 등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서울 삼성SDS 캠퍼스에서는 오는 12일 6개 자매마을이 참여해 쌀, 잣, 견과류 등을 판매한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도 각각 탕정과 천안, 수원과 부산 사업장에서 자매마을이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995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02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일손 돕기, 농촌체험,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희찬 경영지원실 사장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협력사에게는 미리 물품대금을 지급해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농민들에게는 소득증대 기회가 되는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 伊 가상화폐 거래소도 해킹 1800억원 규모 무단 인출

올 들어 두 번째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말 일본에 이어 이탈리아 가상화폐 거래소가 최근 해킹 공격을 당하며 1800억원 규모 피해를 입었다.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거래소 비트그레일(BitGrail)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자체 조사 결과 신생 가상화폐의 하나인 나노(Nano) 1700만개가 무단 인출됐다고 밝혔다. 무단 인출된 가상화폐의 가치는 1억7000만 달러, 우리돈 1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그레일은 피해 직후 경찰 당국에 곧바로 신고하며 가상화폐 거래를 일시적 중단했다. 다만 피해 보상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나노와 달리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다른 가상화폐 8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나노는 지난 2015년 등장한 신생 가상화폐로 비트그레일을 포함해 세계 10여 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2



비트그레일 홈페이지 갈무리.

월 1일 나노 가격은 20 센트에 불과했으나 개발진이 나노 브랜드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올 1월 2일 37.62 달러까지 가격이 수직 상승했다. 그러나 비트그레일 해킹 이후 가격이 폭락해 이날 현재 가격은 전일 대비 16% 폭락한 8.62 달러에 머물렀다.

한편 지난달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체크는 해킹 공격을 받아 580억원, 우리돈 약 564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담배·도시락 팔던 '편의점의 변신' 화장품·반려동물용품도 잘팔리네

비식품류 등 비주류 상품 매출 호황  
화장품 브랜드와 전용상품도 출시

담배, 도시락을 사는 곳으로 익숙했던 편의점에서 화장품, 반려동물용품 등 '비주류' 상품 매출도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매출에서 식품 비중은 95%에 달한다. 나머지 5%가량이 비식품인데 최근 편의점이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비식품류 매출이 급증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씨유)가 최근 5년간 비식품류(담배 제외) 매출을 분석한 결과 2013년과 2014년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매출 신장률이 2015년 11.5%, 2016년 14.7%로 조금씩 상승하다가 지난해에는 25.3%로 경증 뛰었다.

주요 품목별로 화장품 매출 신장률은 2014년 6.6%, 2015년 10.8%, 2016년 13.3%에 이어 지난해 18.5%로 올랐다. 반려동물용품 매출 신장률은 2015년 30.3%에서 지난해 55.4%나 급증했다. 편의점 접근성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식품은 물론 비식품류까지 손을 뻗으며 전체 객단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이에 편의점업계는 비주류 상품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U는 에뛰드하우스, 홀리카홀리카 등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체 편의점 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대학가, 오피스 등 젊은 고객이 몰리는 500여개 점포에 화장품 특화 매대를 설치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용품 전용 브랜드 '하울고'를 론칭하고 반려동물 용품 전용 존인 'CU 펫하우스'를 선보였다. 사오미의 이어폰, 보조배터리 등 휴대폰 용품도 꾸준히 매출이 느는 효자 상품이다.

GS25는 지난달 토니모리와 손잡고 GS25 전용 색조 화장품 '러비버디'를 론칭했다. GS25는 10대와 20대 고객들이 많은 점포 500점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1000점까지 러비버디 전용 매대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GS25의 화장품 매출은 전년 대비 2015년 16.9%, 2016년 19.7%, 2017년 24.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비온드와 손잡고 선보인 GS25 전용키트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스킨케어 카테고리 매출을 2016년 대비 90% 이상 끌어올렸다.

GS25와 토니모리는 개성을 중요시 하는

1020 여성 고객들이 주요 구매층으로 떠오름에 따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화장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세븐일레븐은 뷰티 브랜드 '로레알'과 함께 남성들을 위한 기초 화장품 '로레알 파리 맨' 시리즈를 단독으로 출시했다. 지난해 남성 화장품 매출은 전년 대비 11.6% 늘었다.

/김유진 기자 ujjin6326@



GS25이 토니모리와 함께 론칭한 색조 화장품 '러비버디'.

/GS리테일



## “日 가상화폐 해킹... 신뢰도 비상”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 지난달 26일 일본 대형 가상통화거래소 코인체크는 580억원 규모의 가상통화(NEM) 부정 유출(해킹) 사고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4년 2월 마운트고스(MT.Gox)에서 발생했던 47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유출 사고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의 가상통화 해킹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체크는 이를 뒤 피해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460억원을 자체 보유 현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공표했다.

한국은행은 11일 이 같은 일본의 해킹 사고로 인해 가상통화 시장이 상당기간 냉각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한은은 이번 사건으로 현재 거래소는 물론 일본 감독당국에 대한 신뢰저하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금융청은 가상통화거래소로서는 최초로 업무개선 명령을 발동하고 수습에 나서지만 역부족이었다. 코인체크는 당

국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영업하며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코인체크의 460억원 규모 보상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정 유출된 5억2300만 님(NEM)에 대해 님당 88.5 엔으로 환산해 보상하다고 했지만 시기를 비롯한 구체적 방안은 미정이다. 시장에선 코인체크의 보유 현금 규모가 불투명한 데다 자본금도 9000만엔에 불과한 점을 들어 폐업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한은은 이번 해킹사건이 향후 가상통화 시장에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거래소 및 감독당국에 대한 신뢰 저하로 가상통화 시장이 상당 기간 냉각될 것으로 봤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해킹이 가상통화 자체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코인체크의 허술한 가상통화 보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시장의 과도한 반응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나온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산재노동자 복귀율 2년 연속 '60%' 넘어

우리나라 산재노동자 복귀율이 2년 연속 6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진국 수준 보다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별 맞춤 재활이 보다 많이 제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종결 산재노동자 8만2885명 중 5만 2596명이 직업에 복귀해 직업복귀율 63.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6년의 61.9%보다 1.6%p 상승한 것이다.

공단은 현재 산재노동자가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 장애로 직업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에게는 잡코디네이터가 1:1 맞

춤서비스로 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를 지원하며 요양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58개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 제공을 강화했다.

또 붕괴, 협착 등 중대재해로 인한 심리불안(트라우마)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와 멘토링프로그램 등의 사회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재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산재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기간 만료, 장해 등으로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장해인에게는 구직등록, 취업설명회,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무료 직업훈련으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의 개인별 맞춤 재활 치료 제공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산재노동자 복귀율은 선진국 복귀율인 75%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